

이준기 "합의나 선처 없다" 악플러들 고소

연기자 이준기가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이준기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5월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몇 년간 이준기와 소속사에 대해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을 최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악의적으로 비방을 일삼는 이들에 대해 "어떤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예뉴스 스테이션

김장훈-이세돌 9단, 이달 말 독도서 특별 대국



가수 김장훈(왼쪽 사진)과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독도에서 특별 대국을 벌인다. 김장훈의 소속사 공연세상은 5월31일 "두 사람이 이달 말 바둑 보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독도에서 대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날씨 등 기후 상황에 따라 독도 입도가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소속사 측은 28일~30일 중 하루를 내다보고 있다. 이번 특별 대국은 2인 1조의 페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장훈과 여성기사, 이세돌과 여성 아마기사가 각각 팀을 꾸려 대결한다. 상금은 승리 팀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게 된다. 김장훈은 "이세돌 9단이 한국 바둑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을 받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은 5월31일 "두 사람이 이달 말 바둑 보급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독도에서 대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날씨 등 기후 상황에 따라 독도 입도가 결정되는 만큼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 소속사 측은 28일~30일 중 하루를 내다보고 있다. 이번 특별 대국은 2인 1조의 페어 형식으로 진행된다. 김장훈과 여성기사, 이세돌과 여성 아마기사가 각각 팀을 꾸려 대결한다. 상금은 승리 팀이 자신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게 된다. 김장훈은 "이세돌 9단이 한국 바둑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을 받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엑소, 9일 정규 3집 발표...8일 대규모 쇼케이스

그룹 엑소(사진)가 9일 정규 3집으로 컴백한다. 엑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겨울 스페셜 앨범 '싱 포 유' 이후 6개월 만에 신곡을 선보인다. 엑소는 새 음반을 발표하기 하루 전인 8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대규모 쇼케이스를 진행한다. 2013년 정규 1집, 지난해 내놓은 정규 2집으로 각각 100만장을 돌파한 만큼 이번 새 앨범에도 가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양의 후예' 감독판 DVD·블루레이 제작 확정



KBS 2TV '태양의 후예'(사진)의 감독판 DVD가 나온다. KBS미디어와 태양의 후예 문화산업연계 문화사는 5월31일 "드라마 감독판 DVD와 블루레이를 제작해 하반기에 출시하기로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팬들은 감독판 DVD와 블루레이를 제작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작진은 난색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일부 팬들이 감독판 제작 청원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이면서 다시 출시하기로 했다. 제작진은 16회 방송분에서 미공개된 장면을 추가하는 등 재편집해 넣을 예정이다.

연기자 박소담(사진)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의 대본 연습에 참여하며 사실상 드라마 출연을 확정했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장혁, 박세영, 윤현민 등과 함께 대본 연습을 진행한다. '뷰티풀 마인드' 측은 "박소담이

윤정수·김숙, 3일 트로트곡 '너만 잘났나' 발표



개그맨 윤정수와 개그우먼 김숙이 트로트곡 '너만 잘났나'를 3일 발표한다. 두 사람은 SM엔터테인먼트(SM)의 디지털 음원 공개 채널인 '스테이션'의 17번째 주자로 나선다. 5월 31일 SM에 따르면 이들은 한 중편채널 프로그램에서 가상 부부로 출연 중인 자신들의 상황을 노래로 담았다. '너만 잘났나'는 김숙 앞에서 그를 퍼지 못하는 윤정수의 절절한 심경을 담은 트로트곡으로 김숙이 작사에 참여했다. SM은 "기타리스트 함춘호와 베이시스트 신현권 등 유명 연주자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음악 랭킹

5월 23일~5월 29일, 자료: 멜론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쏘쏘	백아연
2	CHEER UP	TWICE
3	넌 사랑하지 않아	어반지카파
4	하늘바라기 (Feat. 하림)	정은지
5	1llusion	Dok2
6	자격지심 (Feat. 은하)	박경
7	RE-BYE	악동뮤지션
8	꿈처럼	벤
9	Good Luck	AOA
10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에디킴



방송인 노홍철(왼쪽 사진)과 걸그룹 CLC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고 시선을 모았다.



뉴스-사진제공 | MBC

튀어야 산다? 산으로 가는 스타들의 공약

자극적·파격적 공약 남발 눈살

돈 얘기부터 민거나 말거나까지 화제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

"시청률(관객) 얼마나 예상하세요? 공약은요?" "○○○하겠습니다."

드라마 제작발표회나 영화 시사회 현장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른바 '공약'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다. 스타들은 출연자의 시청률이나 흥행

성적이 일정한 기준을 만족시키면 그에 따라 팬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보답하겠다고 공개적인 약속을 내놓곤 한다.

몇 년 전만해도 '프리 히그를 하겠다' '인형 탈을 쓰고 서울 명동 거리를 거닐겠다' 등 애교 넘치는 공약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공약이 남발되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 받거나 식상하다는 시선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누가 더 인상 깊은 공약을 제시하는지 마치 경쟁하는 듯한 모습도 눈살을 찌푸리게 해 '공약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인 노홍철은 MBC FM4U '굿모닝FM 노홍철입니다'의 새 진행자로 나서며 "생방송에 지각하면 청취자의 이름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진행자 전현무와 달리 지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의지이다. 다만 기부라고는 하지만 돈과 관련한 약속은 굳이 해야 했느냐는 시선이 나온다. 걸그룹 CLC는 "음원차트 1위에 오르면 사발을 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이들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

고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믿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상대역과 결혼하겠다는, '민거나 말거나'식 발언도 내놓는 연예인도 없지 않다.

물론 이 같은 자극적이고 파격적인 공약은 "화제를 모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다. 또 소소한 재미를 안기는 공약도 없지 않다. MBC 수목드라마 '운빨로맨스'의 류준열은 "시청률 20% 달성하면 짜장라면 파티를 열겠다"고 밝혔다. 케이블채널 tvN '또 오해영' 측은 10%를

넘으면 남자주인공인 예리과 팬의 '일일데이트'를 내걸며 시청자의 시선을 모았다.

정지은 문화평론가는 5월31일 "최근 다양하게 쏟아지는 연예인들의 공약은 마케팅 수단으로 전략한 느낌이 강하다. 공약이 없는 게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서로 경쟁하듯 '통 큰 선물'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인론이 조장한 부분도 없잖아. 시도 때도 없이 묻는 질문에 연예인들이 그 분위기를 거스르기 어렵다"고 했다.

박소담 '뷰티풀 마인드' 출연 강행

내일 드라마 대본 연습에 참여 겹치기 출연 가능성 없다 판단

연기자 박소담(사진)이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뷰티풀 마인드'의 대본 연습에 참여하며 사실상 드라마 출연을 확정했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장혁, 박세영, 윤현민 등과 함께 대본 연습을 진행한다. '뷰티풀 마인드' 측은 "박소담이



출연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며 16부작 드라마가 20일 방송을 시작해 8월 9일 종영할 때까지 '뷰티풀 마인드' 출연을 결정했다. 하지만 '뷰티풀 마인드' 측이 여름 시즌 방영을 목표로 일부 방송사들과 편성을 논의하면서 박소담의 도의적 책임과 겹치기 출연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모든 촬영을 완료한 '신

데렐라'는 케이블채널 tvN이 방송할 전망이다. 하지만 그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만일 '신데렐라'가 '뷰티풀 마인드'의 종영일인 8월9일보다 이전에 방송을 시작하면 박소담은 또 다시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만 한 방송 관계자는 5월31일 "'신데렐라'가 중국과 동시 방송할 목표로 제작됐기에 현지 방송담당 정책부서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약 2개월에 걸친 영상 사전심의 받는다는"며 '뷰티풀 마인드'와 방송 기간이 겹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데렐라' 제

작진과 박소담 사이에 팬 갈등의 골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다. 양측은 박소담의 '뷰티풀 마인드' 출연과 관련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는 내용증명을 주고 받은 상황이다.

또 박소담은 이와 관련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 분쟁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해놓았다. 경우에 따라 양측의 갈등 양상이 장기화할 우려도 없지 않다. 방송가에서는 '신데렐라'의 방송을 앞두고 진행할 홍보 및 프로모션 활동을 위해서라도 양측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민지, 솔로 데뷔보다 학업이 먼저

이달 말 방학 후 가수 활동 논의

빠른 시기 안에 솔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 투에니원 출신 공민지(사진)가 홀로서기보다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공민지는 2014년 박복의 마약류 밀반입 논란으로 투에니원의 활동이 멈추면서 2년의 공백기를 보냈고,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5월 초 계

약을 만료된 직후 곧바로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어 빠른 컴백이 예상됐던 터였다. 하지만 가수 준비보다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 새 소속사 뮤직웍스와는 계약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활동 방향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고 있다.

뮤직웍스의 한 관계자는 5월31일 "현재 공민지가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있어 향후 펼칠 가수 활동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까지 나누지 않고 있다. 6월 말 방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민지는 백석대 기독교학부 신학과 14학번으로, 현재 3학년 1학기 재학 중이다. 입학 후 휴학 한 번 없이 학교에 다닐 정도로 캠퍼스 생활에 빠져 있다. 어린 시절부터 춤을 찾던 공민지는 중학교 1학년생이던 14살에 YG엔터테인먼트 오디션을 통해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고, 연예활동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2009년 고교를 자퇴했다. 이후 4년 만인 2013년 검정고시를 통해 고교 졸업자격을 얻었고 이듬해 백석대로 진학했다. 눈여겨볼 점은 공민지의 전공이 목회자가 되는 신학과라는 점이다. 공민지는 늦깎이 신입생 시절이던 2014년 5월1일자 백석대 교내 신문인 '백석선교신문'와 인터뷰에서 "항우 어떤 일을 하고 싶냐"는 질문에 "아이들이 기독교 문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답변했다.

'성폭행 미수 혐의' 유상무 경찰 출석

"여자친구 맞느냐" 질문에 침묵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5월31일 약 8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한 유상무는 오후

6시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검은색 계통의 정장 차림에 긴장된 모습으로 나타난 유상무는 조사에 앞서 "심리를 꺼져 죄송하다. 사건에 대한 모든 것은 진실하게 경찰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성이 여자친구가 맞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상무는 5월18일 오전 3시에 서울 강남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해 알려진 사건과 관련해 유상무는 "여자친구이며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여자친구가 아니다"고 밝혔다.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유상무가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